

# 庚申譜序文

維我

瑞柳之門은 精粹한 華閥也라 維自

黃帝로 至崇伯凡四世하여 傳于妣·王·車·柳氏하니 卽氏族之源派者也라 始祖左相公 本姓은 車氏요 諱는 承穡이니 以爲變姓하고 諱는 穡이라하다 至五世諱 普林之子 諱 車達 號 鶴沙公이 率 靑紅衣神軍千餘等而佐

麗太祖하사 統合三韓이라 賞賜之日에 題名壁上封 翊贊二等功臣官大丞하시니 直我柳氏中祖也시라 自中祖至十世에 傳于文簡公瑞寧府院君하니 諱는 成澗이요 公而爲瑞山始祖하시고 厥后七世에 傳于靖肅公琴軒하니 諱는 方澤이요 文僖公思庵하니 諱는 淑이니라 是源派之別이 皆始出於昭然之序也라 故로 夫譜者는 重也요 普也라

我瑞柳之譜는 始自甲戌·丙戌·乙酉·庚辰·己巳·己亥譜等으로시 既六回의 出刊이 된다 이 같은 業績은 先祖의 誠力과 崇祖尊奉의 精神이 含有된 族譜라 하겟다 修譜에는 昭然詳細하게 收錄되어 後孫이 加添調整됨이 不要이나 然이나 己亥譜以後 二十餘星霜이 經過된 至今에서 譜冊刊行의 切實한 要望이 論議되어 己未年陰三月二十日 瑞山仁旨(공소골) 祭壇享祀後 大宗會에서 湖南·湖西·嶺南諸宗이 相互熟議한 바 意見合致로 因하여 마침내 大同譜刊行發議를 公式化하여 推進키로 決定한 바다 這間 八月十五日에 大田에서 發起人 總議를 거취 諸般節次를 採擇決定한 後에 九月十五日 永同光淵族宅에서 委員選任과 部署決定을한 然後 各其所任을 通하여 業務를 推進키로 하고 全國에 散在한 各宗門에 其趣旨를 傳達通報와 併行하여 本格化하오르서 大同譜出刊役事가 이루어 졌다.

崇祖之義와 宗族敦睦之誼로시 이어져 欣快之事라 아니 할 수 있으라。然이나 오랜 歲月과

歷史속에 東西四方으로 離散居住하다 보니 同根宗族之間이라 할지라도 相互가 알 수 없고 如 他人之間이나 다름없는 形便으로 지내 왔음은 實로 慨嘆치 않을 수 없는 일이다. 今此多幸이 累刊에 脱落된 全宗族이 庚申譜刊行에 無漏參與하는 快舉로서 其意義가 자못 크다고 본다. 그러나 祖國의 分斷으로 三八 以北에 居住하는 宗族의 漏落은 不可抗力이라고 보나 痛嘆함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庚申譜를 發刊함에 있어서 舊編輯體裁를 完全脫皮하고 現世代에 適應하는 新型版으로 改新 하여 出刊하게 됨은 劃期的인 轉換이라 하겠다. 이 같은 業務推進을 爲하여 一線에서 盡力하는 任員光淵·昶東·炳訓·炳南·炳善·寅炯·永震·秉鎔·禹鎭·炳弼·基洙諸族의 勞苦에 대하여 陳謝하는 바이다. 庚申譜刊行準備過程에서 새로운 喜消息은 不幸이 哲宗朝南延君墓設被厄으로 毀撤되어 其遺跡이 杳然하던 文僖公思庵先祖의 墓所趾와 神道碑臺石(龜趺)을 索出發見하였는바 이는 喆東(禮山·古德)族의 盡竭努力으로 成就된 快舉之事라 않을 수 없다. 墓所와 神道碑復元等은 睦族之誼로 有終의 結實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 既論及한바 있는 設壇公議에는 大田에 居住하신 正魯叔父宅에서 諸宗族이 發論하여 衆意로 提唱한 바를 實踐에 옮겨 自今後每陰三月二十日을 享祀定祭日로 施行하게 되었으며 今在譜刊 役事進行中에 많은 考證과 새로운 事蹟을 發見하여 收錄編輯된 것은 宗門을 爲하여 慶賀스럽고 意義깊은 일이라 하겠다.

修譜를 楔機로 하여 同根祖顯의 精神을 加一層昂揚하여 子孫萬代에 이르기까지 奉先祖之思想과 敦厚睦族之誼를 根幹으로 하여 毫末이라도 疎遠됨이 없도록 連帶意識을 強化하여 相助의 互惠精神으로 血統의 빛나는 榮光된 祖顯의 열을 永久不滅하게 傳해줄 것을 付托하면서 淺見薄聞한 나의 所見의 一端을 披瀝하여 序文에 가름하는 바이다.

歲在庚申仲秋八月下泮

瑞柳宗親會長兼庚申譜刊行都有司

大丞公三十三世孫

基祥

謹識

# 庚申譜後序

民族은 곧 氏族이요 氏族은 곧 血統이니 族譜는 그 血統을 體系化한 記錄이며 民族發展의 細分한 歷史이기도 하다.

우리 東國의 柳氏는 軒轅之苗裔라 姬 妣 王 車 四姓을 거처 大丞公에까지가 凡百八世이고 大丞公에서 文簡公諱公權까지가 六世이다.

文簡公이 二子를 두었으니 長은 尚書公諱彥沉이요 次는 僕射公諱澤이니 여기에서 甲乙 兩房이 됨에 文化 豊山 瑞山 善山 全州 晋州의 分貫이 모두 甲派의 所産임을 譜牒에 考證하면 알 수 있다.

修譜의 年度와 回數는 甲戌이 처음이고 丙戌 乙酉 庚辰 己巳 己亥 庚申에 까지 七回에 이른다. 縱的으로 本支分派의 昭詳한 系統과 橫的으로 行列字 統一로 尊卑와 寸數等 一目瞭然히 全國에 散在한 族親의 派閥 居住와 墳墓所在의 代代相繼한 世德 忠孝 節義 文章 價値觀인 先世文獻이 모두 이 譜冊中에 收錄되었고 開卷一覽에 追遠睦族의 孝悌之心이 一層加해지고 自家名分의 確然한 存在와 높은 矜持를 갖게끔 한 것이 즉 이 族譜의 힘이요 功이라고 할 수 있다

竊念컨대 最中譜牒을 閱覽할 때마다 언제나 姓孫들의 痛恨스러운 것은 顯祖墳墓가 失傳된 史記인지라 光復後 三十年 歲在 甲寅에 分貫始祖인 瑞山府院君 文簡公諱成澗을 爲始해 中郎 將公諱 林 禮部尚書公諱 宗元 閣門祇候公諱公器 檢校軍器監公諱 宏 太中大夫禮賓卿公諱成 巨通議大夫太常卿公諱 成桂 文僖公諱 淑 靖肅公諱方澤 文靖公諱伯濡 文肅公諱伯淳 八代 十一位를 瑞山郡 仁旨面 南井里 孔昭洞 山八二의 二番地에 靈域을 定해 設壇立石하고 每年 陰三月二十日 歲一祀 壇享을 行事해 온 것이 于今七年째다.

譜序에 設壇說이 贅言 같으나 亦是 壇享時 다음 자리에 發議이고 着手에서 完成까지가 오권時

日이 아님을 불때이 또한 祖先의 嘿佑와 後裔의 睦族合一의 所致라 生覺된다。나 같이 無能한 人事가 어찌다 前後事業의 役任에 參與했기에 含嘿할 수 없어 顛末을 記錄한 것이 序로선 不當하나 願컨대 이 譜가 우리 모두의 根本精神과 宗族敦睦의 求心處가 되기를 바라며 멸리 信川派 諸族과 同修譜를 못한 것이 원망스럽고 未安하다。

庚申 八月

下浣

後孫

光淵

謹書

## 祝

惟—我瑞柳之源이 分封於六貫하니 即以文化 豐山 瑞山 善山 全州 晋州 是也 我—中祖 文簡公이 封瑞寧 府院君하니 諱는 成澗也 以源派之分으로 子孫이 因以爲其貫하니 即瑞山之其一也 故로 瑞柳之譜는 始自甲戌로 今至于 庚申하야 七刊而 吾柳之系譜하니 是其幸一也 以是 嶺湖南西 諸宗으로 同爲 詢議하니 則意見一致也 故로 即爲不日 修譜之役하야 千枝萬派之分과 遠近 親疎之別을 綿綿細細히 考明彙錄하야 是以 更修也 故로 譜者는 重且 普也 故로 不爲萬物로 共盡而 卓然其不朽者는 有至於 後世에 而 忠賢節義 文章 德行者也 然則 譜牒之所 重과 未所重이 於斯에 無不可知也 故로 崇其祖하고 愛子孫之心 則必無差等也 故로 派分於百世之上하고 居在於千里之外로 雖萬子孫은 以後로 無爲 路人之 同視之 耻하고 其講派別에 則 特知 昭睦之行矣 故로 一祖一身之 親族 遠近을 於此에 可考可察而已로 故로 細細密密히 相輔相知가 如何如何哉 耶아 是見聞 薄微한 不肖도 茲以一寸一語로 感祝馬하노라

歲在 庚申

桂秋 八月

下浣 后孫

昶東

謹書

## 祝 庚申 譜發刊

우리는 이제 또한 차츰 우리 집안의 系列과 歷史와 人間關係를 엮어내게 되었다.

먼저 우리의 姓名을 살펴보면 姓과 貫은 家門을 名은 家門의 代數를 나타내는 行列로 構成되어있다。 姓은 또 自己 家庭만을 本位로 하는 稱號가 아니고 ほん 先祖의 子孫들이 이르는 家門을 一元으로 하는 元來의 稱號인 것이다。 따라서 氏族은 그 家門을 떠날 수 없는 百代之親이며 共同體요 單一體인 것이라 새삼 感銘된다。 族譜는 이 大家族의 系列을 收錄한 書冊이라 하겠고 系列의 그 生命이며 一族의 歷史를 나타내는 諸文獻과 人間關係를 말하는 各資料 또는 그 무슨 規制 등이 添加되어 있으며 個人的 權威나 利害보다는 家庭이나 門中을 中心으로 하는 協同團結을 涵養하는데 크나큰 도음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 先祖中 特히 忠孝節義나 道德文章 또는 官爵 등으로 世上에 顯出한 分 또 그 業績과 功績을 蒐錄하여 家系の 榮譽을 永續으로 尊重하고 그 遺業을 讚仰하였다。 同時에 自己가 그 後裔임에 큰 矜持를 갖게 되고 또 그 後裔로서 待遇를 받게 되며 더구나 社會階級の 固定化를 가져오는 根據가 되므로 當當히 重要視되어 왔다。 反面 族譜에 或不淨이 들고 크게는 民族團合에 宿命的對立의 助長을 던진 弊端들을 史記에서 보기도 한다。 萬象은 時間을 따라 變遷하며 또 現在로 未來를 이룩해 가면서 우리는 展進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族譜에 關係가 많은 生覺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祖上의 名望과 業績에만 置重했던 族譜를 血統과 傳統을 바탕으로 보다 더 合理性을 띠고 團結과 發展에 그리고 一族敦睦에서 他門과의 協同 더 나아가서 이 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높은 次元으로 昇華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父系中心만의 編成을 止揚하여 새로운 修補와 後孫이 族譜를 보고 곧 理解할 수 있도록 卽現代感覺에 알맞는 體制로 大衆化가 研究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生覺으로 보건대 今般의 庚申譜는 그 모든 點에서 完璧하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庚申譜가 우리 遠祖의 遺芳餘澤과 近世를 살피 溫故而知新하고 科學的 操縱性을 定立해서 後承의 前途를 보다 淸楚하게 이끌어 가는데 보람이 될 것을 希求하면서 疑心치 않는다。 이 莫重宗事를 爲해 衆難을 克服하며 精進하여 發刊케 된데 對

해 宗族諸位와 더불어 그 一員으로서 欣快함을 한가지로 하는 바이다。

庚申仲秋下泮 後孫 秉館 謹識

## 己亥譜序

譜族之法昉於周禮小史奠繫世知祖宗之本源如水之千派萬流同出於一源故范文正有祖宗視之則均是子孫之語程子有收宗族厚風俗之訓據此則祖先之血脈豈可不廣收而修譜也哉日柳友澤容携其先譜來曰吾瑞柳散處八域譜或以大同或以分派己刊四五而自亂後付於兵烟者十之七八而炎涼且隔存沒莫知此吾門之所恨而見今陰雲未開懲忘收族爲今日急務以瑞山爲貫者宜無此彊彼界而謀修以大同勢不得不於捨北而收南則子其序之余辭不獲謹按譜曰瑞山氏上系勲業尚矣自本 朝言之或有扶植名教者或有立懂王事者磊落相望使人凜然有生氣嗚呼九原可作當掃妖氛安生靈而既不可得則其文行節義之炳然者足可以激發今人之忠義而彼戕逆悖倫者亦聞風愧死之不暇矣譜雖柳氏一家之私而或大東恢復之一兆朕歟今於修譜在北之未收雖若可憾而後或有道演者出則安知不有如江南譜之秘傳耶一時之未完有不須論蓋古者譜四世篤近也篤近則可以及遠雖不能通同於今日亦可爲異日通同之基本諸公其諗之前後尸事者光淵永震炳爽都幹性淵其人

歲屠維大淵獻孟夏下泮

鶴城 金 載石 謹序

## 己亥譜序

夫源深之水其流必長根固之木其枝必茂不治其源何以望派流之長遠不培其根豈可望枝葉之繁茂哉然則人之爲譜亦如此理始自一人之身而以至千萬昭穆之辨與否秩序之順與錯全在於譜之修不修則歐陽公辨昭穆之言蘇老泉感孝悌之說良有以也然則爲人子孫者豈可泛忽哉吾東爲譜始自麗而遠不過羅者多矣吾柳則肇自黃帝以至我朝歷代文獻開卷而昭然此豈非祖先之治源培根之意歟然則吾柳可謂源深根固雲仍之赫赫餘蔭之綿綿固是倘來之物豈不壯哉可不喜哉自麗大丞以後名公匡卿代代相繼而世德也忠孝也節義也文章也至於潛德幽行既於前番五次修譜中庚辰己巳刊行時瑞山君善山君順序誤錄故

今茲五貫譜冊一一詳攷整正而祖先及諸大家之序撰與跋至矣盡矣則以吾淺見敢不贅說而已已修譜既爲一紀而世又變遷不可不速修各處子孫亦體祖先裕後之心一發此言僉議詢同即爲着手不幾日而付於剞劂氏功已告竣祖先之遺跡雲仍之繁榮一開卷而昭然在目萬子孫之欣喜豈可盡道哉以吾不文可以含默而猥忝任末略記斯役之顛末而亦冀來裔之勿替焉

檀紀四二九二年己亥四月

日

后孫 性淵 謹序

### 跋

同祖而異貫古亦有之吾柳至文簡公諱成澗先祖分爲六貫瑞山其一也瑞柳之譜已修五度而最後三十年前所修者湖西湖南分爲派譜者也異貫異譜猶爲有憾况同貫而異譜乎以是宗族之有憾大矣今於修譜湖南亦欣然復合吾柳之幸一也前譜以力綿小刊爲憾矣今將多刊廣怖使布護四方之族藏棄一秩便於攷閱吾柳之幸二也前日之二憾翻成二幸然又有一憾蓋吾柳之在北鮮者不爲不多而南北成變蠲宗族爲楚越勢不免漏譜此非一憾者乎天若祚我南北爲一則漏者復合憾翻爲幸矣此實吾柳之望也今番譜役之主幹者光淵也終始贊同者澹默永震政植喜鏞冠植炳來炳爽澤容鎮玖禹鎮浩振也余亦猥在視役之顛末略綴數語書于序下

時己亥肇夏

后孫 澹兌 謹跋

### 跋

我柳譜刊凡四五今又以大同者一經酷亂各家所藏之入於兵烟者殆半而且非惟北路杜絕雖在南者亦存沒莫知哀慶不相通吁哀慶不通則敦睦何自而生敦睦不行則視若塗人某之派某之後亦何自而知乎今風浪未熄若有一番滄桑則竟歸於杞宋之無徵者亦安知不有也此吾門大同之所以再圖者也其深計遠慮靡不周且詳切而第有一陳愚衷者程朱己有收宗族明譜系知祖宗本源之訓而挽近名教頹敗廉恥倒喪往往有捨微而就顯混本而亂倫者無所顧忌識者之寒心久矣此安得不爲共戒而互勉也哉至於先德勲業修譜源委前後序詳矣不必絮疊

歲屠維大淵獻季夏上澣

后孫 秉春 謹跋

## 己巳譜序

柳氏氏瑞山自瑞寧府院君諱成澗始也自是厥後文章節義職爲傳家之物而以言乎間世之豪則琴軒思菴樗亭泰齋葦村楸洞三省葆川雪江秋潭松菴市隱白村龍湫諸君子出足以矜式當世模範後人而位不稱德行不盡才是亦謙光之盛而天道神理之所益福未必不爲之兆矣氏之爲譜也四而承乎數百載之後跨竈之赫赫已無可言而繩武之振振綽有餘饒則求之故家巨族夫孰彷彿者哉明譜繼而朝廷之勢尊收宗族而天下人心攝張程之說備矣然則譜豈徒一家之事抑亦爲朝廷天下之事也氏之譜之明族之收豈非關於國朝風化之盛而庚辰之譜歷世已久馴至今日匪風下泉之吟從而激焉則譜之事豈可已哉氏又明之嚴宗支之別正名分之義繼之庚辰之後而眷眷乎春秋之筆焉嗚呼瑞山之譜五焉而將天下後世之有賴也夫譜之爲言普也譜不普譜哉譜哉

歲屠維大荒落柔兆攝提之月

日

嘉義大夫吏曹叅判兼同知

經筵春秋館義禁府成均館事

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 己巳譜序

夫譜也者普合氏族之言也人家雲仍益蕃世代漸遠則乃分爲百千之派而其麗不億矣然諸厥初則自一祖之血肉以致千孫之形體而親爲踈踈爲路是故范文正公曰祖宗視之則均是子孫豈非至言乎比之木則一本萬枝比之水則一源百派何嘗近遠之殊哉後之人此爲不講親盡世遠則未能敦睦而視如路人者有之故眉陽蘇氏之譜所以起而孝悌之心油然而生者也然則敦宗族辨昭穆莫譜之若也大抵吾瑞柳之有譜也久而始於甲戌再於丙戌又於乙酉又於庚辰譜既四刊則黃帝以後來繼班班可考而至若琴軒思菴樗亭葦村楸洞泰齋雪江松菴東村諸公或黼黻王庭或柯則士林俱有俎豆之侑日省桃山三省葆川秋潭市隱白村龍湫花谷玄岡歸樂窩諸公亦克承祖武遺芳百世而其忠孝也道德也節義也文章也亦瞭然於卷中使後孫覽

驪興 閔丙承 序



涉者有所興感矣甲丙乙以後未修三十年一紀之譜而或三紀而修或二紀而修此莫非宗議之不均也勢力之難支故也今於庚辰之刊近二紀而子姓倍前椒蕃宗族散居嶺湖而道途迥窳落落宗議未叶詢同至此延掇則實吾宗之晝宵憂慮者也何幸族從永郁甫不憚脩道之發涉只勤闡宗敦睦之誼與湖嶺諸族爛商則謀詢僉同於是設劄劄之所於龍城弓藏洞之齋室功已告竣乃開卷敬讀祖先之遺蹟不難可攷而禰祖之昭穆弟兄之序行秩秩昭載雖世代綿遠之族自譜視之則安得不如始爲兄弟之日乎便是一家底氣像也然則吾族之譜成果有數歟抑有待其人歟亦有待其時歟如余不肖忝在任末不可含默故敢措短喙搆此蕪辭以記其略焉

己巳秋七月

日

后孫 永善 謹序

## 庚辰譜序

我東氏族之繼世者多有始自麗朝而上溯羅濟者亦鮮矣今於瑞寧柳氏之來請譜序也考其文獻則肇自軒轅以至孔甲之弟祖明避居于平壤歷幾世有諱卓達高麗開國功臣九傳至翰林公有子五人分封於文瑞晉善全仍以爲貫焉四封之於文類黃渥之於庭堅皆出於婺州也而瑞寧即今之瑞山也上下數千年之間不知幾番奕世歷事幾姓不失其傳式至 我朝名臣碩輔磊落相望始知根固而葉茂源深而流遠潛德幽行之隱而不顯者業有前輩之貴揚則不須贅焉而第其琴軒之恨推星曆韜晦見志思蒼之玉潔風行夷險一節樗亭之宗師櫟翁扶植斯文葦村之紹述家庭文行兼備楸洞之養德尚志屢徵不起泰齋之講磨經傳開示蘊奧三省之布衣抗章昭雪六臣主簿公之逮丁龍蛇倡義殉節白村之不求名利篤學實踐花溪市隱之沉潛墳典敦行孝悌日省雪江之鄉黨信服恬靜自守松菴葆川之手持麟史世稱國器秋潭龍湫之高尚節義博涉經史并美於一門之內道學文章忠孝節義相繼相承赫世不替不亦偉哉今瑞柳之散處各道者苟究其源分諸一人之身雖在千里之外面目不相識之間同其祖而共其譜則當以祖先一視之心爲心不可有一毫踈遠之意也蘇氏所謂孝悌之心油然而生既以孝悌相復則敦睦之風大行而琴軒以下諸公之盛德至行復當繼出於

柳氏之門而門闈之興隆將如今日之視昔其勉乎哉顧以鹵莽何敢承當於人家文字而琴軒後裔學春在一揖余而言曰吾家世襲淵源竊有興慕於春尤兩門舊譜之修鰲村爲之序今於是設捨貴門何以哉辭不獲已謹書而歸之

崇禎紀元後五庚辰菊秋下澣

德恩 宋綺老 序

## 乙酉譜序

柳氏籍瑞山者蓋自文化分封其譜繼始於 崇禎再甲戌而已三刊矣可謂勤於收族矣柳君居清州者萬源煥天來求余新刊序文凡序于族譜者或揄揚其先美或勉戒其後人舍是則無以爲辭而柳氏舊譜自有序跋世德之可述者靡有不舉而并取其誌狀編爲附錄且引蘇氏譜序及范文正均是子孫語以之相勗者至矣余又何以贅焉第念閱是譜而起欽者尤豈不在於忠節諸公乎若琴軒公以麗朝舊臣承 命於推步星曆則其跡若有可議而固辭爵賞退隱以歿則其心斷然可知豈非以天時之差度不可不正而可以無歉於罔僕之素志歟然猶作詩而自傷則其又何如哉狀之者擬之於陳洪範則固過矣然識其心而能推類則亦不可不云爾况楸洞三省非其後承乎楸洞公之謝世遯跡三省公之請伸六臣其所守所立甚是卓偉而其志節之所自來實有不可誣者觀於其孫其孰間然於其祖也其狀文兩本之有不同不能無惑於來後其後孫固已有所論辯而茲又略書此以明其本心焉嗚呼柳氏近世稍不振殊可惜也既勤於收族復能修其敦睦如舊序之云而各自砥礪不沫前徽則昌大之漸其惟在是夫

崇禎四乙酉孟冬

日

德恩 宋禪圭 序

## 丙戌譜序

夫人之有先猶木之有根水之有源其根固而枝葉茂其源深而波流遠則槩我柳氏尤可驗矣柳氏之系出自黃帝一轉而至顓頊再轉而至夏禹三傳而至王孔甲則其間歷世已至二九矣孔甲之弟祖明與劉累共避龍

鹽復求之禍始來于吾東平壤北一土山下而居焉其後至受兢爲箕子設八條之師化民成俗故賜姓王氏蓋  
 取所居曰土之土字升其傍點者也歷十二世而有諱贊又歷四十五世而有上柱國廉廉之十三世孫侍中蒙  
 避一土草家爲王之讖三改姓而爲車車後三十餘世世奕台鉉而至大相穡以撥反復讎之事露亾命奔儒州  
 初從祖母姓楊氏後爲柳氏五傳世至大丞車達公爲麗祖開國之勲臣歷九世而翰林公有子五人俱得封爵  
 始分文瑞普善全五派而子孫各以貫焉吾家之以瑞寧爲貫者始於此也貫瑞以來顯職高官節義文章蔚然  
 輩出琴軒思菴併世而倡之於前樗亭泰齋趾美而繼之於後爲世四賢俱享俎豆至若葦村楸洞三省葆川雪  
 江秋潭市隱松菴白村諸公皆以命世之才雖位不稱其德其節行標致足可以矜式於當世而模範於後世則  
 向所謂根固而葉茂源深而流遠者非耶噫世代浸遠後屬漸疎則均是一人之裔而便成路人源派之分昭穆  
 之序人莫得而詳知則程夫子所謂管攝人心莫如收宗族之訓果安在哉粵在甲戌懶翁益瑞氏爲是之懼修  
 瑞寧譜則其間星霜一甲已周一紀有餘而當時修譜貴於速就未免疎漏之患不無來後之恨矣顧我瑞柳俱  
 是評理公之後承則分派不甚相遠而舊譜中多有脫落者此非遠體近述之義也今者不佞敢以淺見寡聞旁  
 搜各家文蹟雖遺漏之派必明辦而載錄者蓋出於重先敦宗之誼也噫譜牒之修不但爲正本支明序行而已  
 宣在於興孝悌尚敦睦之意一開卷而同祖同裔母論系代高下派之遠近各以行第彙錄一部并井不紊則殆  
 乎若父子也兄弟也同居一室融藹沕穆矣夫如是則派分百世之上居在千里之外而雖無一面之雅豈不若  
 一家之親而祖祖親親之誠孰不感發于中者乎是知蘇明允譜序中孝悌之心油然而生云者正以此也噫爲  
 人祖而愛子孫之心必無差等則爲人孫者以其祖之所愛愛其祖之所生則敦親之道不待勉強而自有餘裕  
 矣世衰俗薄情盡服盡則有若越人之視秦是不愛其祖之所愛而終歸於不愛其祖之科矣詩曰兄弟既翕和  
 樂且湛子曰父母其順矣乎書曰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可不懼哉可不勉哉

崇禎後三丙戌四月下浣

后孫 夢星 謹序

## 舊譜跋

余每讀范希文均是子孫之說未嘗不爲之惕然感歎也夫人之初生只一人之身而分而至於千枝萬派雖有

遠近親疎之別而其天屬之恩則固無異同於其間自祖先視之則今之疎遠者皆我祖先之所同愛也以吾愛子孫之心追思祖先之愛子孫則古今人情同一天秉彝之仁也吾何獨愛吾之子孫而不愛祖先之所同愛者乎而况其中幸而有不至甚弊者亦祖先積德之餘而大夫之氣未絕者也今或籍之以不甚斃欲加之甚弊之宗黨尤豈所謂體一視之先心乎惟我瑞寧氏自別貫以後分旁各宗僅爲十數代矣散處各道其麗不億而嶺湖迥隔有或平生不相識面者後屬之疎乃至於斯蘇明允譜序中路人之歎正謂此歟然推而本之則皆是我評理公出也夫同出一人之身同爲一人之後則與我同其宗者亦可以知相好之義不忍有相外之心而第觀近日各處氣像大有不然者人心不純薄德滋長遠近無互持之勢大小有相傾之習甚至於長短相較衰旺相乘則此是希文之所戒矣但懸越而已而若使昭昭在天之先靈有所降鑑其將謂此如何哉抑吾聞之前世仁厚是柳氏家法遠居宗黨固不敢論十代以上吾無尚爾試以見聞所及而言之今我光西諸宗往往有不服袒免者已累世而然各派父兄恩愛甚篤和氣自孚疾痛相關忻懌相視實無間於同房弟昆矣不幸世事嬗改諸父諸兄相繼見背迪輩不得侍杖履于今幾歲而傳家仁厚之風未見其一二存者是迪輩非但不能遠體近述而在父兄之事惟不得推之也如此而敢曰善繼述乎此吾諸宗之所常隱痛者而今者幸而譜單整理事日接遠近宗人公派溯源以講敦睦之誼善端之萌自此可見也修單纔畢馱病到譜所轉向桑鄉謄拜院宇還與諸道宗人合席袞輯始就劄削昔日之親盡情盡視若路人者一如同胞罔有遠近若是乎譜牒之有關於世也夫若使遠近諸宗知微於前而有改於後各自惕慮不負祖先同愛之心則豈但爲宗中之小慶而已迪謹承諸宗勤教敢爲之跋如右既又以一言效其愚曰夫世間敦睦之失各因已私搖之也私之所蔽則利害較計之心生而有長於人不知其可從有短於己不知其可屈畢竟欲直己鉤曲人之繩則私之爲害至於屯矣以此而處宗黨可保其無失和乎今我諸宗如欲爲善後之道必先絕去私萌有偏厚之心無獨便之志勿以好惡爲是非勿以利害爲得失而有辦以必勝爲懼有作以必遂爲戒已之所長不以加人己之所旺不以乘人又不可以有所不可施責施於人則公議明於一門之內人人相愛大小遠近莫不一於和矣向所謂遠體近述自今可企而及之諸公以爲如何此皆出於迪之誠心相勉之義也諸公如以爲非矯而有可採之實則迪雖愚駭請與諸宗奉而周旋矣

崇禎三丙戌四月下浣

后孫 迪 謹跋

## 甲戌譜序

瑞山之柳本於文化蓋以中世移封瑞寧而子孫因以別其氏也柳氏舊無印譜頃歲京居宗人處厚氏始集諸家譜修正而印出之瑞柳之散居諸道者各送世系單子無慮十數件皆以瑞寧繼於翰林學士公之後者若合符契此下不意幹事者受私託主先入此下豈得已哉茲與清瑞諸宗通議累歲今始駁正以活字印出實恐彼譜獨行於世遠則真贋之混嫡庶之亂人莫得而辨之也噫宗譜修正是何等重事而輒敢容私意主已見至於如是茲於編首略叙顛末而其詳則在於凡例觀者察焉

崇禎紀元後甲戌二月下浣

后孫 益瑞 謹序

吾家先輩多以文章節義名世而並無行狀碑文可傳於後余懼其久而或泯也乃修譜之日忘以所聞見輒加數句於諱下因屬諸執事諸君而語之曰若知吾家之得以爲吾家者乎自吾先八吾鄉不克大顯高王父昆季以文章傳後而亦位不稱德及至廣山進士公東角叅奉公兄弟倡之於前嘉樂進士公兄弟東角洗馬公兄弟繼之於後雖潛德幽光不爲世用而然其節行標致非直可以風動一時亦有以波及後人至今吾家之得以爲吾家者皆先輩諸公之力也然及諸君之身幾於五世而斬矣况至汝子若孫其能得保如今日乎若不及今而爲無忝所生計則爲后嗣者殆爾僉曰唯敢不勉旃

益瑞復誌

柳氏各派上系

一世 柳車達 大丞  
 二世 孝金 左尹  
 三世 金奐 大將軍中尹  
 四世 盧一 檢校大將軍  
 五世 寶春 檢校少府少監  
 六世 寵 檢校少府少監  
 七世 公權 見下

公權 諡文簡公東國名筆  
 八世 彥沉 尚書公  
 九世 淳 密直使兼翰林學士監門衛上護軍  
 十世 早雲 无后  
 十一世 澹 侍郎  
 十二世 司雨 漢城府尹  
 十三世 之沼 侍郎  
 十四世 南浦 中郎將

松節 郎將  
 光秀 文繕工  
 之澤 內侍郎  
 南澗 司正

湜 匡靖僉議評理上護軍  
 培 密直 无后  
 光遠 縣令  
 河 渚 殿直

安澤 贈領議政  
 臨 兵曹判書 辛忠莊公  
 寬 號夏亭 右相  
 思訥 大提學 諡文肅公  
 孟開 文參判

文肅公派  
 夏亭公派  
 侍郎公派  
 豐山派  
 全山派  
 善山派  
 文平公派  
 ○ 嶽山香派具下

瑞山柳氏世系圖



瑞山柳氏二世系

澤  
一云彦澤  
左僕射  
翰林學士  
敬  
諡文正公  
初諱域修  
文殿大學士

陞  
都僉議事  
諡貞慎公  
使  
仁修  
中門祇候

仁庇  
晉山君移  
封晉州  
洧  
贊成

靖  
按廉使

惠孫  
諡安簡公

惠芳  
郡守諡翊襄公

邦憲  
諡貞簡公

濡  
牧使

瑱  
縣監

珣  
軍資正

琰  
大提學

珣  
諡文平公

池  
縣監

衛  
牧使

澗  
判尹

云  
府尹

謙  
直提學

克渠  
戶曹判書

克濟  
判書

克修  
吏曹判書

克恕  
直提學

克剛  
判典校寺事

祇候使公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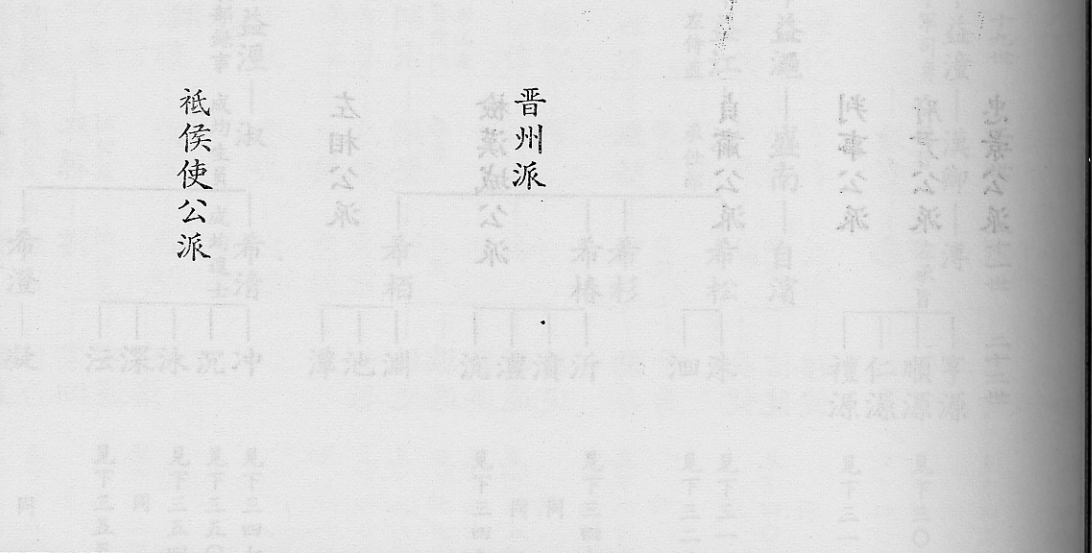
晉州派

洪津公派

忠景公派

忠景公派

忠景公派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翰林學士  
大興大學  
文獻  
大五  
公

一諱仁和  
餘議贊成  
始寧君  
諡章敬公

總  
仁全  
代言贈領  
議政

行昱  
約言

景輝  
中郎將  
曼殊  
左相

原之  
商議中樞

殷之  
都摠制

洪  
開城尹

孟宜  
郎將  
仲宜  
中郎將

鎮  
初諱丘大  
匡文化君

元顯  
檢漢城事

善  
郡事

穎  
大司憲  
諡良度公

衡  
縣令

廷顯  
號月亭領  
議政諡貞  
肅公

章  
觀察使

廷懋  
判事

斯榮  
縣令

繼祖  
尚書

信  
府尹

仁琦  
大匡三司  
事文化君  
諡溫靖公

甫發  
代言

恂  
判事

亮  
右議政諡忠敬公

左相公派

檢漢城公派

貞肅公派

判事公派

府尹公派

忠景公派